성파 대종사 “내가 못난이” 실수마저 품어낸 ‘하심’

5월 29일, 총무원 부실장 스님 예방
조계사 봉축법요식 해프닝 ‘참회’
성파 스님 “과오는 내게 있어”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5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변전에서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봉축법요식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 대한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성파 스님은 소임자 스님들을 격려하며 미소로 덕담을 건넸다. 사진 제공=조계종

“봉축 법요식에서 종정 예하께 누를 끼쳐 드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원 소임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참회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5월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변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해프닝을 두고, 실무를 맡은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송구함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내 정변전의 무거운 공기는 성파 스님의 자애로운 웃음과 덕담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성파 스님은 “지나간 일에 대해 과(過)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과가 있다면 외빈들이 다수 참여하는 생방송 법요식에서 시간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나에게 있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부·실장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은 이유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 당일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법요식에서 성파 스님은 미리 준비된 법어 대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즉석 법문을 내렸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은 같을 테니 오로지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넨 뒤, 일상에서의 수행을 강조하며 ‘살림살이’에 대한 법문을 이어가던 참이었다.

이때 생방송 중계 시간이 임박해 오자, 관계자가 종정 스님에게 귓속말로 마무리 상황을 알렸다. 스님은 “그만 하라 카나?”라며 소탈하게 웃어 대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곧이어 법어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사회자가 행사 종료를 알리는 목탁을 치며 “종정 예하께서…”라며 마무리 멘트까지 송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종단 최고 어른의 법문이 중간에 끊기는 자칫 심각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당황하거나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특유의 유머와 하심(下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아이다, 그건 아이다. 내가 마쳐야 마치지 강제로 마치는 건. 조계종 종정은 이렇게 못난이입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덮어놓고 해가지고 강제로 마치도록 됐어요. 하하하.”

스스로를 ‘못난이’라 낮추며 너털웃음을 터뜨린 스님의 대처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파안대소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날 일에 대해 성파 스님은 “그만한 일에 참회라는 말은 옳지 않다”면서 “의도치 않게 구실이 생겨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반갑다”고 미소 지었다.

이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법요식과 종정 예하의 어른스럽고 친근한 면모가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됐다”며 “불교의 유연하고 탈권위적인 이미지가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 총무국장 담산 스님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 종단 찾아 ‘봉축’

5월 24일 조계 · 천태 · 태고종 법회
현직 대통령 내외 첫 동반 참석
이 대통령 “자비로 채울 때 상생”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4일 조계종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태고종 양주 청련사 법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사진은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내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태고종 양주 청련사를 찾아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다.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을 모두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요식에 참석한 것도 최초다.

이 대통령은 5월 24일 오후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원로의장 호명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기관장 스님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육법공양을 통해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과 상진 스님은 등을, 김 여사와 능해 스님은 차를 부처님에게 올렸다. 이어 주요 내외빈들은 관욕의식을 진행했다.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3000년 전,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오신 그 원력이 크고 크며 넓고 넓어서 이 우주 밖에 가득하다”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이어 “오늘 많은 불자들이 밝힌 이 지혜의 등불 인연이 이루어지면 모든 생명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축원했다.

상진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경제적 갈등과 대립은 인류의 삶을 고해로 만들고 있다”면서 “불만, 불편, 부정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지니 다툼이 없어질 것이니 비로소 세상은 평화의 정토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밝히는 봉축 연등은 단순한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아니다”며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전하는 마음의 등불이자 지혜의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상생과 통합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부대중은 이정훈 태고종 중앙청년회장이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거행된 조계종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서울 관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차담 및 점심 공양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부처님께 헌화한 후 신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어 천태종 스님들과 비빔밥, 탕평채 등 사찰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비와 나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해 온 불교계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불교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서진영 BBS 사장 해임
사장 직대 수불 스님

제131차 이사회서 결의
겸직 · 체납 등의 이유로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이 해임됐다.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수불 스님)는 5월 28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및 당연직 이사 해임의 건과 사장 직무대행의 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의했다. 사장 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수불 스님이 선임됐다.

이사진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흑자였던 방송국의 재정이 서 사장 취임 후 적자로 전환돼 경영 전반이 악화됐으며 겸직 문제, 세금 체납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BBS지부(지부장 손근선, 이하 노조) 역시 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성명서를 통해 △겸직 제한 의무 위반 △방만 경영 △사장실 자산 은닉처 활용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근선 지부장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이사회의 결단”이라며 “노사 구분 없이 오롯이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며 “굉장히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많은 결의”라고 지적하고 “즉시 법원에 해임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장으로서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악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사에서는 60여 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불교방송은 2억3000만원의 당기 순이익 흑자가 났다”고 소명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서 사장은 “이사회 정관 14조 3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상정된 사전에 1주일 전에 고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있다”며 “소위원회를 사장 해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